

소상공인대회 개최... K-온돌 알린 문래출 대표 철탑산업훈장

(귀뚜라미보일러용산판매주)

중기부,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보자기 포장 박정희, 석탑산업훈장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손실보상 차질없이 추진 할 것"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4일 경남 창원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및 기능경진대회' 행사장을 관계자들과 함께 둘러보고 있다. /중기부

소상공인들의 혁신의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꺾이지 않았다.

소상공인의 날(11월5일)을 맞아 귀뚜라미보일러용산판매(주) 문래출 대표가 철탑산업훈장을, 한국선물포장협회 박정희 이사가 석탑산업훈장을 각각 수훈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모범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를 포상하는 '2021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및 기능경진대회'를 4일 경남 창원시 컨벤션센터에서 열었다.

소상공인대회는 2006년부터 시작해 2015년에 소상공인의 날(11월5일)과 주간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소상공인

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매년 열리는 소상공인 최대 축제의 장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개최했지만 올해는 11월부터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번 대회는 '새로운 일상의 시작!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

로건 아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과 안정적인 경영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희망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부포상 전수식에 앞서 진행된 일상회복 퍼포먼스에선 주요 참석자들이 터치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변화되는 일상을 담은 모션 그

래픽 영상이 하나씩 무대 발광다이오드(LED)에 펼쳐졌다.

정부포상 전수식에선 모범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 우수 지원단체에게 산업훈장 2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 표창 9점, 국무총리 표창 11점 등 정부포상 24점과 장관급 표창 122점이 함께 수여됐다.

모범 소상공인에 뽑힌 문래출 대표는 한·중·일 바닷난방포럼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 온수온돌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육성 공로자 부문 수상자인 박정희 이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우리나라 보자기를 이용한 선물 포장으로 한국의 미와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힘썼다.

아울러 화훼 디자인 산업 발전에 기여한 남영숙플라워아트 남영숙 대표, 한국 도자기의 위상을 제고한 무안(분청사기) 김옥수 대표는 산업포장을 각각 받았다.

우수지원단체 부문에선 한국남부발전이 부산콘텐츠 마켓 및 브랜드 페스타에 3년간 연속 후원해 한류 콘텐츠의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열리는 기능경진대회에는 한국메이크업 미용사회, 한국맛춤양복협회, 한국펫산업소매협회, 아시아외식연합회 등 총 4개 단체의 소상공인 1000여명이 참가해 숙련된 기술과 재능을 선보인다.

중기부 권철승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 여파와 방역 조치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난 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해 부족하나마 작은 희망과 위로를 드릴 수 있었다"며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손실보상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책금융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동양제강·효성전기 등 11곳 '명문장수기업'

중기부, 중기중앙회서 확인서 수여
해당업종 45년 이상 유지기업 평가

동양제강 등 중소기업 7곳, 효성전기 등 중견기업 4곳이 '명문장수기업'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선정을 시작한 명문장수기업은 총 30개사로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들 11개 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하고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확인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올해 명문장수기업은 총 100개사가 신청해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선정요건 확인, 서면평가, 현장평가, 정부기관·언론 등의 평판 검증과 전문가 집단의 심층평가 등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절차를 거쳤다.

명문장수기업은 해당 업종에서 45년

이상 유지한 기업으로 장기 고용유지 등 경제적 기여, 인권·안전·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번에 뽑힌 동양제강은 1949년에 창립해 무려 70년 이상 지속된 기업으로 변화하는 환경에도 기술개발을 통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UHMWPE) 원사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산업안전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안전 성가금 지급, 임직원 건강검진 지원 등 안전 및 보건 분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1971년에 설립해 전 세계로 금고를 수출하고 있는 ㈜부일금고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을 시행하는 등 임직원 인권 존중 분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이번에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됐다. 부일금고는 회사가 위치한 지자체인 김

해시가 추천했다.

명문장수기업들은 올해부터 더욱 다양한 우대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혁신성장지원자금의 한도 확대 등 5개 사업만 우대했지만 올해부터는 산업기능요원 선발 가점을 비롯해 수출유망중소기업 가점 등 중기부의 61개 사업에 대해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들은 자사 또는 제품 홍보 시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전 수준의 고용을 회복한 데는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인 중소·중견기업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오랜 기간 경제·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문장수기업이 더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지원을 늘려 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KCC, 국내·외 우수 스타트업 발굴·육성

한국무역협회와 업무협약 맺어
도로·신소재 등 참여 스타트업 모집

KCC가 국내·외 우수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 KCC는 한국무역협회와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참여 희망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스타트업 지원에 필요한 인프라 공유·인적 교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지원 ▲국내·외 스타트업의 네트워크 협력채널 구축 및 상시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발굴 대상 스타트업은 KCC의 주력 사업 영역인 건축자재, 도로, 신소재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국내 및 해외 스타트업이다.

상세 주제로는 ▲친환경 건축자재, 폐용제 회수 시스템 등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ESG ▲경량화 복합재료, 단열재 등 신소재 ▲스마트 도로 코팅재, 폐물수지



KCC 이용노 경영전략부(오른쪽)가 한국무역협회 이동기 혁신성장본부장과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CC

대체 친환경 바인더 등 신제품이 있다.

모집기간은 국내기업은 이달 19일까지, 해외기업은 내년 1월13일까지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뽑힌 국내기업은 12월16일 열리는 'KCC X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 밋업'에 참가하며 해외기업은 내년 1월20일 온라인을 통해 밋업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스타트업, 글로벌 혁신기업 성장 이끌것"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청년 스타트업 대표자들과 간담회



김이사장과는 간담회에는 ㈜밤부네트웍크 정다빈 대표 등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 대표자 7명이 참석했다. 대표자들은 스타트업의 경우 네트워크와 인력 부족으로 초기 마케팅 및 해외진출에 한계가 있고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도 독자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지속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창업 지원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는 ICT,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 등 해외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아이템과 기술력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우선 선발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사진)은 4일 "스타트업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지속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김학도 이사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청년 스타트업 대표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중진공은 자금, 마케팅, 연구개발(R&D) 등 보유한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이사장이 청년 창업가들과 만난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는 올해 글로벌 진출 유망 창업기업 135개사를 선발했다. 특히 이들 기업은 총 매출액 200억원, 신규 고용 638명 창출 등 우수한 성과를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에이스침대 '박스터' 팝업

에이스침대가 현대백화점 판교점 8층에 유럽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 '박스터(Baxter)'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4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지난 10월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에 박스터(Baxter)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데 이어 이번 팝업스토어는 이달 18일까지 운영한다.

박스터는 엄선한 가죽을 이용해 클래식하고 트렌디한 가구 디자인으로 이탈리아 가구 트렌드를 이끄는 브랜드 중 최고로 손꼽힌다.

이번 팝업스토어 공간에선 ▲깊은 양감을 구현하는 카피토네 기법으로 만들어진 대표 제품 '체스터몬(Chester Mon)' 소파 등 박스터의 다양한 디자인 제품들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승호 기자

동반성장위-현대위아, 협력 중소기업 추가지원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

동반성장위원회와 현대위아가 협력 중소기업 추가 지원에 나섰다.

동반위는 현대위아, 협력사 이엠코리아, 영진테크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협력 중소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중소기업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총 1005억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협력 중소기업들은 협력기업 간 거래에서도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R&D,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 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 노력 등을 펼치기로 했다.

또 동반위는 현대위아와 협력 중소기업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될 수 있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권기홍 동반위원은 "이번 협약은 협약대상을 늘려 2차 협력사까지 포함한 4자간 협약으로, 차량부품 및 기계제조업 분야의 1차 협력사, 2·3차 협력사들이 폭넓게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